정기국회 개막 … 입법·예산전쟁 시작

여야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조국 임명 여파 국정감사·예산 심사 대립 예고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 등으로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기에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나아가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자체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안정치모임, 정의당, 평화당 등 진보 성향 야권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워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불꽃 튀는 설전이 펼쳐진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국회 폭력사태' 의원 109명 수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반납한 채 기록 검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조광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사건 18건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수사에 본격 돌입하기 전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만 109명에 이른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다.

검찰이 가능하면 연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은 이처럼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부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미리 공공수사부 검사를 충원했고, 특수수사 부서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의 일부 검사들도 패스트트랙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연합뉴스

조국 5촌조카 조사…이르면 오늘 영장
사모펀드 투자 경위·투자처 상의 여부 집중 추궁

검찰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 5촌 조카를 이틀째 조사 했다.

검찰은 괌에서 귀국한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씨에 대한 첫날 조사는 14일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대표로 나서는 대신 '바지사장'을 내세우고선 실질적 의사 결정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손아래처남과 두 자녀 등 6명은 블루코어밸류업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경위 및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에게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렸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았다. WFM 대표는 코링크 이상훈 대표가 겸임했다.

검찰은 조씨 조사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조국, 대선주자 3위로
SBS 의뢰 칸타코리아 조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11.1%) 조 장관은 7.0%로 3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총리는 15.9%로 1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4%로 2위를 기록했다.

조 장관은 지난 광복절 여론조사에서 4.4%를 얻어서 6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2.6%포인트 높아진 3위로 올라섰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0.5%p 오른 5.3%로 지난달보다 두 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한 계단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위에서 6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선호도는 4.5%로 지난달보다 1.6% 떨어졌다.

이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4.3%, 안철수 전 의원은 3.7%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후보 없음'은 17.6%, '모르겠다'는 답변은 17.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RDD, 유선 20%·무선 8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 김홍영 전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반조반문 연대' 보수대통합 시동 거나
한국당·바른미래 연대 투쟁 시사…황교안 러브콜 유승민 화답

조국 장관 임명이 보수대통합 등 정계개편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중도·개혁보수' 노선 사이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범보수 진영에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임명 규탄과 함께 대정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반(反)조국 전선'이 형성되면서 범보수 진영이 합종연횡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 빅 텐트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러브콜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동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연대를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나 저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그렇다면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그동안 한국당과 연대 등에 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조 장관 임명 이슈에 한해서라도 한국당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보수대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바른미래당의 분화로 인한 정계개편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분열되면서 보수대통합과 대안정치연대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신당 창당 등이 가시화되면서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보수진영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가시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묵혀왔던 탄핵 찬반 논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

'반조국연대' 술렁이는 바른미래
보수야권 합종연횡 가능성…당권·비당권파 셈법 분주

바른미래당 내 역학 구도가 '반(反)조국 연대' 움직임에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고리로 한 보수야권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권파 대 비당권파로 나뉜 바른미래당의 분열상이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반응은 엇갈렸다.

당권파를 이끄는 손학규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은 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이는 황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중도개혁세력의 제3지대 통합을 주장해 온 당권파로선 조국 사태를 계기로 행여 불거질지 모를 한국당과의 통합론을 기존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또 바른정당계의 수장인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강하게 견제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황 대표의 '국민 연대' 제안을 두고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약속이 철회된 것을 두고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추석 이후 한층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합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복지병원 등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11607㎡ 투자에 좋음 농협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가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건물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펜션적합 건평 269㎡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매도 4억6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 신축 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영암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 은행 등 5억8천 사찰도 적합 3천만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국안내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9-1500 ·광 산 944-0444